
영역주권

SPHERE SOVEREIGNTY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 주권 (Ad Fontes Edition)

원제: Sphere Sovereignty, Abraham Kuyper, 1880.

발행처: Ad Fontes (adfontes.kr)

발행일: 2026 년 5 월 11 일

저작권 및 판권 안내

본 도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원전을 바탕으로 Ad Fontes 가 현대적 AI 기술과 전문
신학자의 감수를 결합하여 새롭게 편집·번역한 독자적인 판본입니다.

본 판본의 번역 및 편집 저작권은 Ad Fontes 에 있으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제, 공유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번역 및 편집: Ad Fontes 편집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Sphere Sovereignty)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은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의 창립 연설인 <영역주권>을 통해 선포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카이퍼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인치도 없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정치, 학문, 예술,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직접 미치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각 영역은 국가나 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생명의 법칙과 자율성을 직접 부여받은 독립적인 구(sphere)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각 영역 위에 군림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정의로운 상호작용을 돕는 '영역들의 영역'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내려는 세속주의와, 모든 삶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카이사르주의) 모두에 맞서 자유로운 유기적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상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성소이자 사명의 자리임을 일깨워 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 정치가, 언론인으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구현해 낸 인물입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침탈당한 네덜란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애썼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일한 기준 아래 학문적 기초를 닦고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일간지 편집장과 네덜란드 최초의 현대 정당인 '반혁명당'의 창설자로서 활동했고, 마침내 네덜란드 수상(1901-1905)직을 수행하며 신앙이 어떻게 국가 경영과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상가를 넘어,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한 '현대 개혁주의의 거인'이라 평가받습니다.

목차

서론

I. 영역 주권의 국가적 의의

II. 영역 주권의 학문적 목적

III. 영역 주권의 개혁 신앙적 성격

서론

이 기관의 운영을 맡은 분들이 저에게 이 고등 교육 기관(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을 관계 당국과 국민에게 소개하며 그 시작을 알리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아낌없는 경청과 너그러운 판단을 구합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개회 연설이나 총장 담화가 아니며, 오히려 과학 연구라는 조용한 안식처에서 내몰려 사방의 울타리마다 돋은 썩기풀과 가시에 걸음마다 데이고 찢리는 공적 삶이라는 위험천만한 지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제 소임의 본질입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신다면, 이 요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마치 마에케나스(Maecenas)처럼 추상 과학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일에 나선 것이 아님을 감추거나 위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위험하고 어쩌면 주제넘어 보일 수도 있는 시도를 하도록 우리를 이끈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족과 조국에 지극히 고귀하고 거룩한 중요성을 지니기에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뿌리 깊은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결코 어떤 독창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 기관의 설립을 고대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함께하는 이 관심이 결코 우리 개인들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관심은 오직, 네덜란드가 장차 국가의 미래에 뚜렷한 자취를 남길 만한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더 높은 기준이 있어 우리가 기존 질서에 안주할 수 있었다면, 어찌 이 과업에 착수했겠습니까? 가장 부드럽게 표현하더라도, 우리의 이 과업은 현재 환경에 대한 저항이자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제언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주제넘음이라는 외양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혹감과 망설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이 불쾌감을 주거나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둘러 여러분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맞서는 학문과 영향력, 그리고 부의 위력을 보든, 우리 자신의 미미함과 보잘것없음을 겸허히 돌아보든, 우리의 확신에 찬 말에 담긴 것은 드높은 자만이 아니라 조용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뒤에 물러나 있기를 더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고, 우리가 행동해야만 했기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호의나 반감에 무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 노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의 요구에 따라서만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소개하는 이 학교가 네덜란드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왜 창끝에 자유의 모자를 내걸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진지하게 개혁 신앙의 책을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역 주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영역 주권이야말로 우리 기관이 지닌 국가적 의의, 학문적 목적, 그리고 개혁 신앙적 성격의 증표임을 밝힘으로써 답을 드리겠습니다.

I. 영역 주권의 국가적 의의

그렇다면 제 담론의 첫 부분은 우리 기관이 지닌 국가적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 또한 이 경외로운 세기 속에서 위기를 통과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모든 민족이 공통으로 겪는 위기이자, 성찰하는 모든 인류를 관통하는 위기입니다. 모든 위기는 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과정 속에서 젊음의 갱신을 약속하거나 죽음으로 인한 파멸로 위협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이 사태에서 영향을 받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도 위태롭게 걸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마치 진보와 보존, 편협함과 다재다능함, 이상과 현실,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라도 되는 양, 누가 옛 시대의 대답을 되풀이하러 하겠습니까? 이러한 진단들 각각이 지닌 부적절함과 불균형, 천박함은 너무나 명백하여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교권주의'와 '자유주의'가 시대의 표어가 되었으니, 마치 영적 영향력의 남용이나 정화가 문제인 듯했습니다. 마침내 이 가림막마저 경멸적으로 걷어치워졌고, 본래 우리 시대의 선지자들만이 이해했던 한 깨달음이 중심부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세계적 위기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뉘앙스나 이해관계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살아있는 위격(Person), 곧 친히 왕이라 맹세하셨고 바로 그 주권적 왕위 주장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나사렛 사람, 우리의 거룩한 영감자! 영감을 주는 이상! 경건의 이상적 천재!'라는 솔직한 외침이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찬사가 나사렛 사람 자신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도 명확한 신인(神人) 의식이 선포한 바는, 다름 아닌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왕의 주권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이'였습니다. 믿음의 영웅도 순교자도 아닌 유대인의 왕, 즉 주권의 소유자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죽음을 요구한 범죄적 참칭(僭稱)으로서 그의 십자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권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의 권능이 실재하는지 아닌지의 문제 때문에, 사유하는 영들과 통치하는 권세들과 역사의 무대에 참여하는 민족들은 교회의 첫 삼 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구원의 진리이시거나, 아니면 모든 민족이 대항해야 마땅한 원리적 거짓이거나 한 바로 그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때 나사렛 사람의 피로 제기되었던 이 문제는 오늘날 다시금 우리의 영적, 인간적, 국가적 실존의 세계를 산산이 찢어놓았습니다.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그 저항에 보복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 권위'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위엄과 일치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감각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물의 계획자요 창조자, 설립자요 결정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존귀한 주권자께서 자신의 권위를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지금도 위임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권위가 언제나 인간이 맡은 직분을 통해 행사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이 맡은 직분에 위임될 때, 그 권위가 어떻게 위임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한 개인에게 나뉘지 않고 통째로 위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상의 주권자는 다른 주권자가 다스리는 또 다른 원들로 경계가 정해진, 제한된 원 안에서만 복종을 강요할 힘을 갖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계시의 영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로부터 자신의 사상 세계에서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대답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가능한 한 분할되지 않고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주권.” 여기서 ‘가능한 한’이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저 높은 곳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고, 자연에 대한 주권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며, 운명에 대한 주권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 없이 국가가 무제한으로 통치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권리, 양심, 심지어 신앙까지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기에, '결합된 힘이 더 강하다'(vis unita fortior)는 원리에 따라 분열된 신들의 권능보다 하나로 통일된 국가의 힘이 더 위압적이고 장엄했습니다. 이로써 카이사르로 구현된 국가는 스스로 신, 곧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신-국가(god-State)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정념이 생겨났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Divus Augustus!)'라는 칭호와 함께 카이사르주의가 곧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심오하고 최악된 관념으로, 18 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헤겔의 국가론 안에서 '현존하는 신'(den gegenwärtigen Gott)이라는 개념으로 사상가들에게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 이 주권은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시아 예언의 해석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하늘의 권능과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셨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장하셨으며, 모든 사람 안에서 양심과 신앙까지 다스리는 권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복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결속마저도 끊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권이 한 사람의 손에 온전히 놓였습니다. 여러 왕국 중 하나가 아닌 절대 왕국 그 자체입니다. "왕이 되려고 내가 태어났고, 이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언젠가 모든 원수가 내 발아래 굴복하고,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예언했고, 나사렛 사람이 주장했으며, 친히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처음 드러내셨고, 그의 사도들이 기록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하여 고백하는 메시아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은 분할되지 않은 채 위임되었으며, 더 정확히는 궁극적으로 반환되기로 예정된 주권입니다. 마침내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 주권은 메시아에게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양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스러운 자유의 이념을 보십시오! 죄 없으신 메시아의 그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주권은, 역설적으로 죄 많은 인간이 지상에서 누리려는 모든 절대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것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마다 고유한 주권을 지닌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전면과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를 지닌 우리 인간의 삶은 결코 단순하거나 획일적이지 않으며, 무한히 구조화된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는 개체가 오직 집단 안에서만 존재하고, 전체는 오직 그 집단들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체의 각 부분들을 제각기 자기 축으로 구동하는 톱니바퀴라 부르든, 저마다 고유하고 생동하는 영으로 채워진 구(sphere)라 부르든, 그 이름이나 비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공의 별자리처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원들이 이 삶 속에 존재하며, 각 원의 둘레는 특정 원리의 중심에서부터 확고한 반지름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의 말처럼 '각각 자기 차례대로'(고전 15:23)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도덕의 세계', '학문의 세계', '상업의 세계', '예술의 세계'라고 말하듯이, '도덕의 영역', '가정의 영역', '사회생활의 영역'이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할 것입니다. 이들 각각은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며, 그 영역의 한계 안에서는 저마다 고유한 주권자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영역이 있어, 주권자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물질에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학문의 영역, 사회의 영역, 교회의 영역 또한 존재합니다. 이들 각각은 고유한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며, 저마다 자신의 머리에 복종합니다. 사유의 영역에서는 논리학의 법칙 외에 어떤 법도 균림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영역에서는 거룩하신 분 외에 아무도 주권적 통치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영역이 있으니, 그 한계 안에서는 오직 개체 자신이 주권자이며, 그 신앙을 통해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이 모든 영역, 곧 원들 안에서 톱니바퀴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바로 이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풍요롭고 다채로우며 다각적인 인간의 삶이 창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삶 속에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영역이 이웃 영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다른 톱니를 부수고, 마침내 전체의 진행을 방해할 위험 말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라는 특별한 권위의 영역, 곧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러 영역이 가시적 세계로 드러날 때 서로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고, 각 영역이 정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이 속한 집단에 의해 억압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개인이 그

영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성경이 간결하게 표현하듯, 주권자는 “의로 보좌를 굳게 세워야” 하며, 의가 없으면 그 보좌는 무너져 자멸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주권은 개인을 보호하고 가시적인 삶의 영역들 간에 정의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명령하고 강제할 권한을 가진 권력으로서, 이 모든 영역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이 영역들 내부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권위, 곧 스스로의 노력 없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권위가 다스립니다. 국가는 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따름입니다. 나아가 국가는 이 영역들 사이의 관계에서 정의를 규정할 때조차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각 영역의 본성과 존재 이유에 나타난 더 높은 의지에 구속됩니다. 국가는 바퀴들이 정해진 대로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생명을 억압하거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자유로운 생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고귀한 국가 주권자를 손짓하여 부르는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두 신조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계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메시아에게 절대적이고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부여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주권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인자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삶의 영역 역시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고유한 최상권, 곧 영역 주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특별한 계시 영역의 실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주권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국가의 주권 외에 다른 어떤 주권도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가장 순수한 의미의 주권 이념을 최고 권력인 국가에 구현하고자 열성적으로 매진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삶의 영역에 국가가 허용하거나 부여하는 것 이상의 자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언들을 주권에 관한 신조(Credos)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상 체계가 아니라 삶의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가르치는 심연은 사유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사실들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계시에서 삶의 원천을 찾는 우리에게 그 메시아는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며, 주권자로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실재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반대로 이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성가신 자기기만, 치명적인 교리, 무의미한 환상이라며 맞서야 합니다. 이처럼 두 고백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물론 이들은 이런저런 요소를 더하고 빼거나 혹은 같은 양을 섞은 여러 절충적 체계들 뒤에 거둬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신조는 근본적인 색채를 부여하는 원리적 신조로서, 결정적인 시기에는 언제나 이 무원칙한 혼합의 유희를 분연히 꺾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올린 채, 삶을 뿌리부터 갈라놓는 유이한 거대한 대립 명제로서 저항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다른 이의 삶을 흔들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이 '국가 주권'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주권이 선포되기 이전 세계사의 흐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왕 아기는 실로 그 '영역 주권'을 자신의 방패로 감싸 주셨지만, 그것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영역 주권은 옛적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본질적 부분이었고 인간 삶의 설계 안에 있었으며, 국가 주권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권이 영역 주권을 자신의 영원한 적수로 의심하고, 영역들 내부에서는 그들 자신의 삶의 규칙을 위반함, 곧 죄로 말미암아 저항할 힘이 소진되자, 고대사는 모든 민족 앞에 부끄러운 광경을 펼쳐 보입니다. 끈질기고 때로는 영웅적인 투쟁 끝에 각자의 영역 안에서의 자유는 소멸하고, 국가 권력은 카이사르주의로 변질되어 우위를 차지합니다.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카이사르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브루투스, 빌라도가 그들의 희생 제물에 피를 섞어버린 갈릴리 사람들, 이 모든 것은 자유로운 유기적 생명이 터뜨린 거칠고 영웅적인 격정이었으나, 마침내 카이사르주의의 철권 아래 스러져 갔습니다. 고대가 저물 무렵, 더 이상 자유도, 민족도, 영역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영역, 하나의 주권 국가 아래 하나의 세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욕에 빠진 인류가 그 마음에서 치욕의 상처를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풍요의 도취감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가 초인적인 힘, 곧 믿음의 힘으로, 쇠사슬에 묶인 '획일화된 전체' 속에 자유로운 영역을,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자유로운 주권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이며, 친히 하나님인 그분은 카이사르에 저항하여 쇠빛장을 부수고, 모든 영역 주권이 의지하는 기초로서 믿음의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제자도 택함 받은 자의 구원 외에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다 이루었다”는 선언에는 세상의 해방, 곧 여러 자유로 이루어진 세계의 해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 위에는 왕(Basileus)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권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세상에 침입한 “이 세상의 임금”과 통치권을 두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형성하자마자 국가 주권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굴복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권적 믿음의 원리는 그들의 피로 씻겨 나갈 수 없습니다. Deus Christus 혹은 Divus Augustus(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아우구스투스는 신인가), 이것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카이사르는 몰락했으며, 해방된 모든 민족은 저마다 왕을 되찾고 그 통치 아래 각자의 영역과 자유를 누리며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사도의 명예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이었고, 길드와 기사단, 자유로운 교제로 점차 풍성해지는 유기체 속에서 영역 주권에 내재된 모든 힘과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어느 곳보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간척지(polder) 영역들로 나뉜 이 땅이 하나로 연합하여 국가 주권에 맞서 영역 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필립 3 세는 시편가를 부르는 이들과 불법적인 들판 설교의 지도자들이 국가 주권과 충돌했을 때 이를 경험했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스튜어트 왕조와 부르봉 왕조 또한 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묘를 마주하고 있는 불멸의 해군 영웅, 위대한 미힐 아드리안손 드 퀴이터가 모든 바다에서 찰스 2 세와 루이 14 세의 떠오르는 왕권주의에 저항하여 모든 해안에서 그 기세를 꺾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배의 선장은 바로 나다!”라는 외침은 그와 우리 해군 영웅들(바다의 거지들) 전체에게 영감을 준 꺼지지 않는 자유 의식을 표현했으며, 모든 바다 위에 선원의 언어로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주권자다”라는 법률 용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우리 민족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네덜란드는 죄에 빠졌으며, 유럽 대륙에 남은 마지막 자유의 보루였던 우리 공화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왕권주의의 물결이 거세져 땅을 유린하고 민족들을 짓밟으며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가장 불붙기 쉬운 한 민족에게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정념이 폭발했으며, 원리의 혁명은 왕관 쓴 주권자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주권자인 인민에게 씌웠습니다. 이는 자유를 향한 갈증에서, 동시에 메시아를 향한 증오에서 태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으나, 자유에 대한 억압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투표일 단 하루의 주권자였던 인민은 투표함을 통해 바로 다음 날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 후견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자코뱅파의, 그다음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카이사르의 후견 아래였습니다. 국가라는 매력적인 이상은 프랑스에서 성급하게 실현되었고, 마침내는 독일 철학자들에 의해 정당하고 '합리적'(vernunftmässig)인 것으로 옹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는 다시금 치욕 속에 내동댕이쳐졌고, 또 한 번 단일한 주권이 다른 모든 주권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이 상황을 구원했을까요? 빈 회의의 복고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칼 루트비히 폰 할러와 조제프 드 메스트르의 군주 숭배도 아니었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으로 모든 숭고한 원리를 억압했던 역사학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roi fainéant)과 폭압적인 파벌들로 이루어진 사이비 입헌 체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일깨운 가장 경이로운 부흥 운동(Réveil, 19세기 초 칼뱅주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은혜와 기도와 믿음의 영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권력과는 다른 주권자를 경배하는 고유한 영역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 영역은 영혼을 헤아렸고, 자비를 실천했으며, 국가들이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고백자로서"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민족들의 희망은 정치적 조작이 아닌 도덕적 힘을 통해 영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메시아께 경의를 표하는 백성의 일부, 곧 기독교도들(pars Christiana)은 지배가 아닌 섬김을 위한 국민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도나 계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직된 집단인 파당(faction)도, 떨어져 나간 조각인 분파(fraction)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것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in partes dilabi)는 원리에 따른 백성의 몫, 곧 국민 정당(people's party)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면, 이러한 일시적 분할을 통해 영광스러운 국민적 통합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도록 다시 영감을 얻게 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빌럼 빌더르데이크는 그의 노래라는 도끼로 인민 주권의 부리를 뽑아내며 그 영역의 윤곽을 그렸고, 이삭 다 코스타는 주권자 메시아에게 바치는 찬송으로 기초를 세웠으며, 마침내 히움 흐룬 판 프린스터라는 그의 웅변적인 공식인 "영역 주권"으로 헌법적 신조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원리에 힘입어, 지난 30 년간 우리는 무릎 꿇고 씨름하며 길 잃은 이들을 찾았고, '영혼을 향한 열정'(passion des âmes)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자비의 집으로서 기관들이 하나둘씩 세워져 우리의 유산을 장식했습니다. 그 원리를 위해 사람들은 비방을 견뎌고, 안식을 포기했으며, 제단에 황금을 바쳤습니다. 그 원리는 백성에게 열정적으로 선포되었고, 보좌 앞에서는 기도가 올려졌으며, 법정에서는 그 대의가 변호되었습니다. "예수의 주권적 최상권 아래, 영역 주권!" 이것이 바로 형제들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던 다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 준 구호였습니다. 이로부터 쉽지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의 미약한 힘을 강철처럼 단련했고, 물살을 거스르는 노젓기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았으며, 압박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힘(pressa uberior)은 짓눌린 용수철이 어김없이 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여러 면에서 우월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동포들을 넘어, 점차 내적인 활력 속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권적 권위의 불가분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의회(States General)가 정부 안이나 아래가 아니라, 정부 곁에서 정부와 함께하도록 싸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복이 임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는 그저 사람을 겁주려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강제 예방 접종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해방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립학교에서 양심의 주권, 가정 영역의 주권,

교육 영역의 주권, 영적 영역의 주권이 위협받았을 때, 우리의 투쟁은 그 학교를 둘러싼 싸움에 집중되었습니다.

하나의 원리는 그 종류를 따라 씨를 뿌리므로, 모든 씨앗이 과학적으로 정돈된 체계 속에서 싹을 틔울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대변하는 국민 정당 역시 믿음의 뿌리에서 과학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과학은 대학의 이상을 품은 학교에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적인 추동력에 이끌려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오늘날의 현실, 즉 이 작고 항해에 부적합한 배의 출범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배는 왕이신 예수의 주권 아래 출항 허가를 받았으며, 모든 학문의 항구에서 '영역 주권'의 깃발을 휘날릴 것입니다.

II. 영역 주권의 학문적 목적

‘영역 주권’은 우리의 학문적 목적을 상징하는 표상으로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스콜라적인 건조함이 아니라 원리에 대한 충실함, 통찰의 깊이, 판단의 명료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상위 권력에 저항하는 힘으로서의 거룩한 지성을 뜻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자유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생명의 영역들은 국가라는 영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공간을 제약할 수 없듯, 가시적인 세계에서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제약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법으로 그 경계를 정해주어야만 합니다. 국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의 포괄적인 전체로 감싸는 ‘영역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모든 영역의 유익을 위해 팔에 힘을 기르고, 그 뻗은 팔로 각 영역이 확장하려는 모든 열망에 맞서 그것을 꺾으려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징표들을 보십시오. 테오도어 몸젠은 카이사르의 강렬한 이미지를 제시하며, 그가 그었던 제국주의 노선으로의 회귀가 우리 세기 정치가들의 지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로 보입니까? 그 총리에게 세단에서 형언할 수 없는 굴욕을 당했던 인물(나폴레옹 3 세)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프랑스 수도에서 세단의 인물을 대신하여 민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민의 호민관은 자유를 사랑하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폭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도덕적 회복력이 위축되어 자유를 향한 공격을 자초한, 비겁하고 무력해진 민족들을 위한 훈육의 수단이자 치유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지상 최고의 권력입니다. 국가 위에 군림하며 주권자에게 정의를 강제할 지상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천한 권력욕 때문이든 공공선에 대한 고결한 염려 때문이든, 모든 국가는 결국 통 널반지의 탄력이 허용하는 한 가장 단단하게 쇠뿔을 조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공기 속에서 번성할지, 아니면 국가의 멍에 아래 신음할지는 궁극적으로 각 생명 영역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 회복력을 지닌 영역은 억압당하지 않으며, 구속복을 입으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근성은 족쇄에 채워지고도 불평할 권리마저 상실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영역 내부에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자유의 위협은, 그 경계에서 국가 권력이 가하는 위협만큼이나 강력합니다. 통에 쇠띠를 두르려는 자는 널빤지 안쪽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안의 불길이 바깥의 망치질보다 널빤지를 더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유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생명 영역 안에는 정념의 불길이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고, 죄의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불은 도덕적 생명력을 잠식하고 각 영역의 회복력을 약화시켜, 마침내 가장 견고한 널빤지마저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공격에서 국가는 공범일 뿐입니다. 주범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주도권을 상실한 시민입니다. 그의 도덕적 활력이 죄와 육욕적인 쾌락의 삶 속에서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이 건전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백성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강력한 도덕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어떤 국가도 정의를 강탈할 수 없습니다. 기강이 무너지고 사치가 만연하며 죄가 파렴치해졌을 때에 비로소, 이론은 약해진 것을 휘게 할 수 있었고 나폴레옹은 씹어가는 것을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철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자를 발전기로 바꾸시려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생명 없는 영역들에 거둬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셨더라면, 마지막 영역마저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유해 위에는 'sic transit'(그렇게 지나가다)라는 묘비명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깨우친 민족들에게 자유를 지키도록 허락하신 방어 수단 가운데는 과학, 곧 학문도 있습니다.

성령의 해석자들 가운데 다소 사람 바울은 학문적으로 훈련된 인물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마르틴 루터 또한 종교개혁의 자유를 명사가 요한이나 실천가 야고보가 아닌, 바울이라는 보물창고에서 길어 올렸습니다. 물론 학문이 자유를 배반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러 번 배반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는 학문의 신성한 사명 때문이 아니라 그 사명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빛의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광인, 백치, 주정뱅이에게서 인간적 면모를 앗아 가는 것이 바로 명료한 의식의 결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 존재하는 것까지 명료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관한,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숙고하신 결과물, 그것이 바로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한 개체의 생명 의식일 뿐 아니라, 모든 시대 인류의 생명 의식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관조하고, 그렇게 우리 의식에 비친 바를 우리의 지성으로 요약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안배입니다.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에 깃든 신적인 특성입니다. 실로 지혜와 과학의 힘은 지대하여, 사물의 경로는 대개 실재 자체를 따르기보다 인간이 그 실재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사상이 여론을 빚어내고, 여론이 정의감을 형성하며, 바로 그 정의감에 따라 영적 생명의 흐름이 녹아내리거나 얼어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원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감정의 영역에 떠다니거나 공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백에 이른다 해도 이는 중간 지점에 불과합니다. 대중을 사로잡으려면 사상의 세계에서 힘을 얻어야 하며, 내면의 충동, 곧 '데우스 인 노비스'(Deus in nobis, 우리 안의 하나님)를 감각의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점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과학은 반드시 '자기 영역에서 주권자'로 남아야 하며, 국가나 교회의 후견 아래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학 역시 진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고유한 생명 영역을 창조하므로, 그 생명 법칙을 어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학의 명예를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울과 같아서 세 개의 세계, 즉 우리를 둘러싼 세계, 우리 자신의 존재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에서 오는 형상을 비춥니다. 이성은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이 세계들 각각이 고유한 본성에 따라, 곧 관찰과 지각을 통해 그 형상들을 비추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맑은 눈으로 그 반영을 포착하여 그 형상들을 이해할 때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눈에 포착된 것을 조화롭게 요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본 것을

그 정합성 안에서 필연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성찰입니다. 바로 지혜를 낳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생명에서 나와 생명을 위하여, 마침내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귀결됩니다.

바록 스피노자는 과학이 자기 영역에서 주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도덕적 잣대로 볼 때 우리가 무미건조한 데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만큼이나 스피노자의 인격에는 깊이 감탄하게 됩니다. 스피노자의 경우, 인식 기관과 지각 모두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그의 결론은 필연적으로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과학의 영역 주권을 침해하는 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기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은 참된 개혁주의자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개혁주의자는, 스피노자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알면서도 무원칙한 타협에 동의하도록 유혹받았던 많은 이들의 흔들리는 우유부단함보다 스피노자의 태도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과학에 자신의 우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과학으로 인해 고통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과학이 결코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자기 영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가 교만의 악마로 타락하여, 과학이 자기 영역 밖의 것까지 넘보도록 부추기는 사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첨탑에 오르려면 심각한 추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듯이, 우리가 국가의 폭정에 대해 말한 바는 과학의 폭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는 한 과학의 폭정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징계했던 바로 그 과학을 다시금 본연의 정확한 경계 안으로 되돌아가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같지는 않은 이유는, 과학이 학교라는 가시적 유기체의 형태를 띠 때 국가는 그 합당한 권역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계획자로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 권력조차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경의를 표하며 신발 끈을 풀고, 그 땅에서는 합당치 않은 주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국가의

시녀가 된 과학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벨린파가 구엘프파[11세기 말-12세기 초 북이탈리아의 대립 파벌]에 맞서기 위해 과학을 이용했고, 프랑스 관료주의는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에서 과학을 남용했으며, 독일의 반동 세력은 '괴팅겐의 수치'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파는 자기 비하 행위이며, 도덕적 영향력에 대한 어떤 정당한 주장도 포기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처럼 국가가 더 고결한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나라처럼 과학이 자존심이 강해 쉽게 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학은 대학 생활에서도 다시금 자신의 뿌리에 기초를 두고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자라나 국가의 후견에서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번영하고 꽃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학교들과 예루살렘의 지혜(Chokhmah) 학교들이 나라의 중심에서 독립적으로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로마의 모방자들의 학교들도 독립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학자들의 학교들도 한때는 그러했으며, 볼로냐와 파리의 고대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이는 지식을 쏟아부을 국가의 간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 생명 안에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는 지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독립적인 형상이 있었기에 대학은 종교개혁의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독립적인 조직은 '국가의 한 분과'로 전락했습니다. 신식 대학 스스로가 국가 기관에 예속되기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의적 결정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압력과 국가 체제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뻗어 나간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국가가 돌연 대학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부조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중이 과학에 대한 열망을 거의 보이지 않고, 부유층은 충분히 관대하지 않으며, 학계에는 그러한 시도를 감행할 만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국가는 지원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단, 우리는 해방을 향한 노력이 수반되고 과학이 다시금 '영역 주권'을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건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이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비과학적인 일이겠습니까? 국립대학에서 형평성의 저울은 이미 너무나 많은 부담에 짓눌려 있습니다.

돈은 주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힘이 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음악을 제외한) 예술은 황금을 필요로 하므로 결코 항구적으로 민중의 자유를 드높일 수 없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이루어진 요한 루돌프 토르베케, 빌럼 알베르트 스킨텐, 또는 코르넬리우스 빌럼 옴주머 같은 단 한 사람의 임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학문의 행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더 높은 차원의,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를 두고 영향력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길을 안내할 영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실제로는 개신교적일 수밖에 없는 신학부를 지원하려고 유대인과 로마 가톨릭 신자에게 재정 기여를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들었듯이, 이 땅의 법이 우리처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기관을 정의의 영역 안에 포함한다면, 이는 국민이 지원하는 대학 안에 과학과 생명을 위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겨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30 년도 채 되기 전에 '몽매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집단이 이제 학문의 대의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은 밭과 일터에서 달려 나와 대학 기금을 모으는, 이 나라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생각 없는 자들'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위로부터 진보가 내려오기를, 과학이 대중에게 전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꽃피기를 바라며 기꺼이 자신의 즐거움을 줄이는 이들이야말로 그보다 더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삶을 결합하는 문제에 이보다 더 실질적인 해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마련한 기금으로 살아가는 과학자라면 당연히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모든 추상적 관념을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주는 행위 자체가 힘이며, 기꺼이 돈을 내놓는 능력은 도덕적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값비싼 기관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쌓일 도덕적 자본의 가치를 누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격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있어 왔지만, 깨어 있는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 헌신보다 인격 형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다른 대학들이 기금을 받는 이들의 위세와 돈 내는 이들의 호의로 굴러간다고 해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바로 그 투쟁 속에서 영광스러운 헌신의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돈에는 금속 본래의 가치를 넘어서는 또 다른, 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땀이 우리 금고로 흘러드는 황금에 깃들어 있습니다.

III. 영역 주권의 개혁주의적 성격

우리는 ‘영역 주권’이 우리 기관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역 주권’이 우리 가운데 모든 과학이 꽃피기 위한 지고의 조건임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제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 가지 요구, 즉 우리의 원리인 개혁주의 원리를 위한 ‘영역 주권’을 허락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언급하는 즉시, 저는 고질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우리가 ‘개혁주의’(Reformed)를 진짜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무엇, 혹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심을 모두 씻어내고자 합니다. 상인이 순중량을 말하고, 주화 제작자가 순금을 논하며, 은세공인이 품질 보증 각인을 내세우고, 성경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일컫듯이, 그리고 스파르너 강변 도시의 어느 신문이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칭하는 것처럼, 우리도 별나게 굴고 싶다면 ‘순수한’ 기독교, ‘정금 같은’ 기독교, ‘값비싼’ 기독교, ‘보증된’ 기독교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이한 용어들은 제쳐두고, 관례와 역사의 요구에 따라 ‘개혁주의’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조품, 불순물이 섞인 것, 위축된 것과 성경적인 기독교를 날카롭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단지 ‘기독교’라고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일 수도, ‘항의파’(알미니안주의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주의자들 중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비기독교화된 학교 입구에 ‘기독교’라는 거짓 깃발을 내걸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의회 회의 중에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까? 무언가 덧붙여야만 합니다. 이보다 덜한 대가를 치르고서는 언어의 혼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 영역에도 영역 주권이 적용되므로, 원리의 이름을 짓거나 그 원리를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그 영역의 역사적 생명을 지닌 주도 기관에 유보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원리를 임의로 고백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아들로서 우리가 지닌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제시해야 했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교회의 합법적 판단, 즉 도르트 신조(1619)에 대한 옹감하고 무조건적인 고백을 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루터파 형제들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알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을 덜 나은 것과 맞바꾸도록 강요받지 않기를, 그리고 허물어진 개혁주의 성전을 순수한 개혁주의 양식에 따라 재건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 담론에서 저 또한 이를 위해 변론했으며, 성경과 장 칼뱅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주권이야말로 생명을 그 뿌리부터 자극하며, 사람과 사탄 자신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 영역 주권이 성경의 핵심과 개혁주의 생명의 보고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에게 먼저 성경의 유기적 신앙 원리의 깊이를 헤아려 보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대관식을 위한 헤브론의 부족법에 주목하고, 아합의 폭정에 맞선 엘리야의 저항을 살피며, 예루살렘 경찰 규정에 따르기를 거부한 제자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주님의 금언에 귀 기울여 보라고 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에 관해 말하자면, 칼뱅의 ‘하위 통치자들’(magistratus inferiores)을 모르십니까? 영역 주권이야말로 장로교 교회 정치 전체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개혁주의 국가들이 연방제적 존재 양식을 지향하지 않았습니까? 칼뱅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의 자유가 가장 활발하게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국내 평화, 지방 분권, 지자체의 자치가 바로 ‘칼뱅의 자녀들’(issus de Calvin)의 약속 위에서 가장 확실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자신의 과학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원리를 위한 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혁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에서 나온 과학과 중립 조약을 맺고 한 식탁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비기독교 권위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에 대한 두려움, 즉 칼뱅이 이교도 폭군에게서조차 존중했던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한 특성은 기껏해야 지붕과 창문이 없는 기초나 벽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더 명확한 비유를 들어 볼까요? 천탑이 없어서 종과 시계, 풍향계 등 탑을 세운 본래 목적을 위한 모든 것이 빠져 버린 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다른 제안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당국은 강단이 갖춰진 강의실과 박물관, 실험실만 제공하고 모든 학자에게는 그곳에 설 권리를, 모든 영역에는 자기 학자를 배치할 권리를 주는 거대한 국립 학술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노선이 한데 모아져 각자 고유의 방향과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중앙역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원리가 각자의 영역 주권을 누릴 고귀한 권리는 서로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고유한 원리를 부여받은 생명 영역마다 과학이 전혀 다른 형태를 띠었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 과학, 아랍 과학, 스콜라 과학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보를 잇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학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거인 같은 지성들의 숙고를 거쳐 잘 구축되었으며, 우리 중 누구도 그들의 그림자에 감히 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톨릭대학과 비가톨릭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그 이후에 등장한 철학자들의 계보는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는지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서로 배타적인 학파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일원론자와 원자론자의 결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한 원리가 갖는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지배적이어서, 헤겔의 지성이 신학, 법학, 물리학 등 모든 분야를 위한 개별 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헤겔 학파에서 형법을,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 학파에서 민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정의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유 원리가 다를 때 하나의 옷감을 짜는 데 협력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이토록 명백하다면, 생명 원리의 경우 영역 주권의 필연성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의 예가 보여주듯, 사유 원리만 관계될 때는 처음에 거부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명 원리의 경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 원리는 사실에, 더 나아가 살아 있는 한 인격에 부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의 출현은 세계사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살아 있는 이 인격,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위 있는 해석자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나사렛의 그 랍비는 자신의 과학이 세상 현자들의 과학과 결부된다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아테네의 상급 과정이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더 높은 지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 랍비는 자신의 지혜 보물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났다고 힘주어 말할 것입니다. 또한 학문적 훈련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습득했던 과학과 그 후에 자신 안에 심긴 생명 원리 사이에 너무나 넓고 깊어 건널 수 없는 심연을 그어 놓고, 전자의 사유 세계를 어리석음으로, 후자의 생명 세계를 지혜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신적인 자기의식에 따르면 서로 다른 부리를 지닌 것을 우리가 한 부리에서 키울 수 있는 척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리란 무언가의 시작이며, 따라서 고유한 원리는 고유한 결과물을 낳는다는 점을 생각하여, 사상의 전 영역에서 우리 원리를 위한 고유한 영역 주권을, 그리고 우리 반대자들의 원리를 위한 또 다른 영역 주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자신의 원리와 그에 맞는 방법론에 따라 반짝이기는 하나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과학의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원리의 부리로부터, 우리 원리에 걸맞은 방법론에 따라, 고유한 생명의 수액으로 가지와 잎과 꽃을 피워내는 나무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자들이 자기기만이라고 딱지 붙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이유로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언의 시인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불경건한 자들은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식 면에서 우리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가 우리보다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을 따라 그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사실인 것을 부정하며, 우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의식적으로 파악한 것을 자신의 영혼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는 믿음,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은 지적 확실성에 근거하고 우리의 지식은 오직 믿음에만 근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이런저런 종류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이는 자기 자아에서 출발하며, 어떤 이는 자신의 이상을 고수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작할 사실이 없는 사람은 사유의

출발점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사유의 출발점이 전무한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를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지은 건물 옆에 우리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공통점이라고는 바깥의 열린 공간, 창밖의 풍경, 그리고 우편배달부처럼 사상의 교통을 유지하는 출판물뿐입니다. 우리 역시 사상들 간의 상호 투쟁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이는 오직 출발점과 방향에 관한 것일 때만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점과 방향이 정해지면, 여러분이 일관된 노선을 걷는 한 여러분의 길은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선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 관점은 결코 일치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논증을 제시하더라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기적 사상가는, 성장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체계를 샅샅이 사유하고 모든 신조를 남김없이 탐색한 뒤에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자론적 허세를 마땅히 비웃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고, 그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지적 능력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만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거나, 남들이 그랬다고 믿을 뿐입니다.

모든 체계를 그저 맛보기식으로 훑는 것은 피상성을 키우고 사유를 망가뜨리며 인격을 해치고, 두뇌가 더 견실한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모든 집을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 지은 집 하나를 지하부터 다락까지 꼼꼼히 살필 때 건축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다는 점을 믿어 주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과학은 '원리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유란 물에 나온 물고기, 흙에서 뿜힌 꽃의 자유일 뿐이며, 비유하자면 드렌트 지방의 일용 노동자가 제 마을을 떠나 느닷없이 런던의 '플리트 스트리트'나 '스트랜드'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자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 확고한 규칙으로 다스려질 때 가장 잘 번성한다고 확신하기에, 우리 자신의 집에서 엄격하고 가차 없이 확고한 삶의 규칙을 따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가장 너그러운 자유란 이것입니다. 떠나려는 이에게는 문을 열어 주고, 외부인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방법론을 기초로 자유롭게 집을 짓고 그 결과물로 건물의 갯돌을 삼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개별적 과학 발전을 신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기독교 의학’이나 ‘기독교 논리학’ 같은 말을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감추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 이의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타락으로 왜곡된 후 다시금 개혁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학문의 출발점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 원천에서 길어 올리는 일을 신학자에게만 한정하고, 의사와 법학자, 문헌학자들은 이 샘을 멸시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름에 걸맞은 과학 중에 그 전문 지식이 다른 분야와 단절된 채 칸막이 속에 갇혀 있는 학문이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의학부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의학이 위생학적으로 유익을 주려는 대상은 병든 포유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을 영혼과 몸에 더 높은 운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도덕적 존재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을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임박한 죽음을 알려야 할까요, 숨겨야 할까요? 산고를 겪는 여인에게 마취를 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방접종을 의무화해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할까요? 혈기 왕성한 젊은이에게 자제를 권해야 할까요, 방종을 권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다산을 맬서스주의로 저주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축복해야 할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이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육체적으로 마취시켜야 할까요? 요컨대, 화장을 용납해야 할까요? 생체 해부를 무조건 허용해야 할까요?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의 검사를 통해 권위와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면서까지 사회에 매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법학 연구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법학은 인간을 스스로 발전하는 자연의 산물로 보는지, 아니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정의를 기능적으로 발전하는 자연 기관으로 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내려와 그분의 말씀에 매인 보물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법을 선택하는 목적과 국제법을 채택하는 지침 또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영역을 넘어, 기독교인의 양심이 지배적인 정치경제학, 통용되는 사업 관행, 사회 관계의 탐욕스러운 본성에 저항을 보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민 생활에서 ‘영역 주권’을 통해 중앙집권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면, 그리고

헌법에 따라 비기독교 학교 하나당 세 개의 독립적인 '기독교 학교'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대립하는 원리들로 인해 법학부의 단 하나의 강좌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연과학부가 자신을 엄격히 측정하고 무게를 다는 일에만 국한한다면, 원리라는 뼈기가 그 문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은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설 없이 활동하는 물리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측정 기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을 주관적인 렌즈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원의 나머지 부분을 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점선으로 이어 붙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쇄된 종이와 잉크 몇 방울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이 당신이 출판한 책이나 소책자, 노래책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수 작품의 가치가 실 몇 가닥의 비용으로 매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는 편이 낫겠습니까. 자연과학자의 눈앞에는 온 창조 세계가 한 폭의 매혹적인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예술 작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금테 액자나 그 밑의 캔버스 천, 그 위의 물감 따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문학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물론 단어를 '읽고' '어미 변화'를 익히는 일 자체는 메시아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나아가 헬라스 예술의 전당 문을 열거나 로마의 권력 세계로 들어설 때, 그 민족들의 영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영을 추방하려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신적 평가에 따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 아래 복종시키려 하는지가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 계시의 백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단지 경건에 대한 천재성을 지닌 민족으로 보느냐에 따라 셈어 연구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철학이 '이상적 존재'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된' 이상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사가 십자가를 소크라테스의 독배와 동일시하느냐, 아니면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조국의 역사를 로버르트 야코부스 프루인이 서술하든, 빌럼 얀 프란스 나위엔스가 서술하든, 아니면 그룬 반 프린스테러르(아,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가 그 모든 영웅적인 아름다움을 펼쳐내듯 서술하든, 그 역사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똑같은 불꽃을 지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인간 대 스스로 발전하는 자연의 산물로서의 인간이라는 대립 구도는, 모든 학부, 모든 과학, 모든 연구자 안에서 '사유하는 주체' 또는 '사유를 촉발하는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우리 사유 세계의 어느 한 부분도 다른 부분과 빈틈없이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치의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들었음을 선언하며, 오직 그 외침에 응답하여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이 과업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자신들의 안타까운 무력함을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학문이 자신들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기에, 그들은 그 원리의 영광에 걸맞은 능력으로 원리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괴감 속에서 다시금 자신들을 이끌 장수와 돌볼 목자, 영감을 줄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처럼 조롱하는 자들의 발아래 짓밟힌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경배하는 한,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이나 적의 우월한 세력, 또는 이토록 대담한 시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우리 뺏속에서 계속 타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하신 분이 우리를 재촉하고 몰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설 수 없었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일부 형제들이 지금은 세울 때가 아니라며 인문주의(Humanism)와의 동거를 택한 사실은 뼈아픈 수치심을 안겨주었지만, 오히려 내면의 충동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주저함이야말로 우리 생명 원리의 미래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작은 학교가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대학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부족했고, 학문적 인력도 넉넉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외면당했습니다. 이 학교의 행로는 어찌 될 것이며, 그 생명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 그 미래에 관한 수많은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구심을 압도하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이 가슴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오직 우리의 거룩한 원리를 붙들었기에

지친 머리를 물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대의가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세우며 감행하는 일은 위대하다 일컬어지는 모든 것을 거스르고, 학자들의 세계 전체를 거스르며, 매혹으로 가득한 한 세기 전체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내면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만큼 우리의 인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문적 위상을 마음껏 낮추어 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칼빈주의자의 신조가 당신에게 그럴 완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설령 당신이 우리의 가장 혹독한 반대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 열정에 대한 존중만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서 먼지를 털어낸 저 고백은 한때 억압받던 민족의 영혼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저 성경은 과거 하나님의 무오한 증거로서 당신들 세대의 슬픔을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관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저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들 조상의 영감의 원천이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설령 당신의 신조를 따라, 또 학자의 서재에서 기록되고 저잣거리에서 회자되는 바와 같이, 성경의 시대는 끝나고 기독교는 낡은 것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도 저는 묻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든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위대하며, 너무나 신성하기에, 불명예스럽게 무너지거나 존엄 없이 스러지기에는 너무나 큰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고귀한 자의 의무(noblesse oblige)란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화살 한 발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골고다에서 관 쓰신 그분의 경호대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이 유업의 땅에 남아 있는 한, 우리가 골고다에서 가져온 저 깃발이 적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이것이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우리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결코’라는 외침에서 이 기관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원리를 향한 충성의 맹세인 그 ‘결코’라는 외침 위에, 모든 애국하는 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아리, 곧 아멘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맺는 기도

진리의 근원이시요 모든 참된 지식과 지혜의 샘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떠나 방향하는 피조물은 어둠과 피곤, 영혼의 고뇌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 주님의 생명에 잠길 때, 빛이 우리를 두르고 힘이 우리 혈관에 고동치며 믿음의 자유가 복된 환희 속에서 펼쳐지나이다. 경배받으실 영원한 위엄의 주여, 이 기관을 은혜의 눈으로 굽어보소서. 이 기관의 모든 금과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닌, 그보다 못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맹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주여, 우리 민족과 학문의 전당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여, 만일 이 기관이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아드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권적이고 값없는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하거나 목적하려 한다면, 주께서 친히 이 기관의 벽을 허무시고 주의 면전에서 소멸시키소서. 주여, 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의 이름에, 오직 주의 이름에만 있나이다! 아멘.